

宗學의 信仰的 思考

張秉吉*

目 次

I. 序章	
1. 전경의 기초	2) 원풀이의 권능
2. 종교의 情感的 定義	3.. 교법
II. 本章 전경의 諸信仰 思想	III. 結章 典經에 나타난 종교사상 의 諸相
1. 行錄	1. 말세(종말)사상
生命賦與의 出產	2. 내세, 재래 상상
2. 公事— 役事—	3. 生과 死 사상
(1) 造化, 道術, 풀이의 思考	4. 심판, 죄 사상
(2) 大權(카리스마)의 思考	5. 선경 사상
1) 치병의 권능	

I. 序章

1. 전경의 기초

종교를 합리주의적인 학문 즉 과학(science)의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 연구, 즉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특수 종교의 가치적 입장에서 떠나, 종교를 객관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학적 연구이다. 이것과 구별해서 그 이전의 연구는

*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전공)

종교 연구라 한다. 이 종교 연구를 신학(神學)적 연구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학문이다. 종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두가지 방법이 있는 셈이다.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종단)가 간행한 典經을 대상으로 종교학 연구와 종교연구의 양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神學的)의 전경관(典經觀)을 밝힐 것이다.

전경은 교전(敎典)의 하나이다. 교전은 종교에서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가르침(敎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자이다. 예컨대 불교의 경전(經典), 그리스도교의 성서, 이슬람교의 코란 따위이다. 창교자(創敎者)가 있는 종교의 교전은 그 창교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취급된다.

전경의 전(典)은 「본보기」, 「기준」, 「법(法)」의 의미로 쓰인 글자이며 경(經)은 진리를 결합한다는 뜻을 가진다. 한 테에 묶는다는 뜻글자이다. 따라서 전경이라면 본보기가 되는 진리, 기준이 되는 진리, 법주적 진리를 말한다. 강성상제의 재세에 전경이 성책(成冊)된 것이 아니고, 강성상제께서 화천(化天, 작고)하신 후, 따르던 제자들이 상제의 재세시에 직접 듣고 본 언행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말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이다.

그 성문화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종도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편찬한 것이다. 현재 교단의 교전 몇권이 있다.

전경은 흩어져있는 종도들을 탐문해서, 그들의 신앙담을 수집하여, 공통점을 찾아서 편찬된 것이다. 이때 기존의 교전과 맞추어 보는 과정에서 그 교전의 부분을 발취하게 됐다.

전경은 대순진리회(종단)의 정전(正典)으로 되어 있다. 七編은 교설을 내용적으로 분류된 것이다. 七篇의 분류와 편명은 진리회의 독자적인 명칭이다. 본고는 전경의 기초신앙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행록편은 강증산의 언행록이다. 공사는 제의적(祭儀的)인 行儀, 교운은 원시공동 조직체, 교법은 종교적 율법이며 제생, 권지는 강성상제의 기적(奇蹟)에 관한 기록이며, 예시는 신앙자들의 미래세계에 대한 기대의 기록이다. 전경은 單卷이다. 단권의 기초적 신앙사상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행록은 다섯 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강성상제(강일순, 호 龜山)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새 종교의 행력(行歷)을 기록한 것이다. 생애 동안의 카리스마(charisma)성을 찾을 것이다.

강문회(姜文會)와 권양덕(權良德)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탄생 때부터의 관후(寬厚), 호생(好生)의 성품과 뛰어난 총명은 못사람의 입에 올랐다. 서당의 시절에 작시(作詩)에서 이미 시성(詩聖)의 혜각(慧覺)을 보였고, 소년기에서는 정의(正義)에 투철함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불행하게도 조선사(朝鮮史)상의 일대 전환기가 되는 동학 전쟁을 맞았다. 전쟁의 와중(渦中)에서 비천하고 빈천한 농민군의 앞날이 불리함을 예지(叡智)하여 수십명의 농민군의 가담을 막았다.

2장의 기록은 강증산이 관군에 의한 평정후에 국운의 루란(累卵)을 예견하여 세상을 등지고 설상의 길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3장은 의세 광구생활(醫世匡救生活) 중에 복마(伏魔)로 인한 고부화액(古阜禍厄)을 겪어서 그간의 포덕(布德)을 물거품으로 돌리게 된 사연을 기록하고 있다.

4장은 옥고(獄苦)를 치룬 뒤에 다시 화민정세(化民靖世)의 노정(露呈)에서 쇠신분골(쇠身紛骨)의 생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4장 후반부터 5장 끝까지는 인생의 죽음이 생(生)의 활력소의 인력(引力)이 됨을 알려주고 있다.

공사편과 교운은 한쌍의 神的 역사(役事)이다. 역사란 토목, 건설의 공사를 의미하나, 종교 신앙상으로는 섭리(攝理)이다. 신적 존재(정령, 신명)가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좋도록 꾸미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낡은 것을 뜯고, 그 위에 새 것을 올리는 건축 공정(工程)이다. 그 공정은 역(易)의 조성(組成)을 의미한다. 교법은 강증산의 교설을 율법화(律法化)한 것이며, 권지편과 제생편은 그의 카리스마에 관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일상생활 방법이 된다. 끝으로의 예시편은 예언서라, 미래에 대한 기대(期待)의 표명이다.

이렇게 편성된 전경은 상제의 말씀이 된다는 데에서 책과는 달리 성전(聖典)이다.

전경의 결집이전의 교설에 담겨있는 신앙세계에 관심이 간다. 대체 전경

의 원상(元像)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동학 동란에 휘말려 무고히 생명과 재산을 몽당 전화(戰火)에 잃은 호남 농민들이 한 가닥의 소망을 걸어 보려는 발문이다.

그 답을 다음 구절에서 독자 개인이 찾자. 그것이 신앙이니까.

「...장홍해의 부친이 상제를 찾아 손자의 빈사(瀕死)를 아뢰이고 살려주기를 애원하는 지라. ...1) ...만인의 갈망을 풀어 주리라. 아래와 웃옷을 벗고 물동이 앞에 합장(合掌)하고 서 있어라. 서양으로 부터 우사(雨師)를 불러와서 갈망을 풀어 주리라. ...2)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를 바라나이다. ...3)」

사람의 소망의 결정(結晶)이 전경이다. 특히 전경의 행록, 공사(교운포함), 제생, 권지, 예시가 전경의 근본적인 결정이고,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상은 당시 유행한 「샤만(巫)의 굿」과 선교(仙敎)와 음양의 사상이다. 이 세가지 조류(潮流)는 삼한(三韓), 고구려시대 이전부터 민중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일상생활 이였다.

전경에 전환점이 보인다. 교법과 예시에서 전경의 사상은 행록, 공사, 권지, 제생의 사상에서 일대 전환한다. 소위 기초 종교(axial religious)의 사상의 흡수이다. 기초 종교란 세계성을 띤 보편 종교, 불교, 도교, 인도교, 기독교, 카톨릭교 등을 말한다. 이 종교에서 중국의 도교, 유교의 사상이 우리 겨레의 신앙, 문화에 짙게 끼쳤다. 전경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현무경의 경우는 그러하다.

경전의 한쪽 부분에서 다른 한쪽으로 거쳐서 형성된 신앙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일순 내지는 강증산이 후천진인, 금산사 미륵을 거쳐서 임종에 가까이 닦아 가면서 “열세자(十三字)의 몸으로 오리라”는 재래자(再來者)」란 윤전(輪轉)에서 보이는 永遠思想이다. 이 사상은 도교적으로 보면 仙人思想이라 하겠다. 강성상제가 처음부터 仙人이었다면 임종을 거친다는 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으나 선인은 불로불사의 영원성을 지닌 존재이다. 「나는 미륵이다.」, 「나는 다시 오리라.」, 「仙人」의 혼합신앙은 우리 민족이

1) 『전경』, 행록, 3장 1절
2) 앞의 책, 권지, 2장 35절
3) 앞의 책, 행록, 5장 33절

옛부터 이어오는 직선(直線)으로 보인다. 이 직선이 기축 종교를 흡수하여도 다른 형태의 종교를 형성하지 못하여 민족 고유의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중국은 도교를, 일본은 신도(神道)를, 몽고 대제국은 라마교를, 아랍은 이슬람교를 생산했었다. 이 종교들도 혼합신앙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전경의 혼합성을 분해(分解)해 보면 다음 표와 같아질 것이다.

편	
행 록 1~5	진묵의 일화, 김형렬의 율곡에 대한 답화, 유불선 음양참위 서적의 통독, 김일부의 영가무도에의 방문, 유서구(柳瑞九), 지사(地師)의 보좌, 유교경전의 지식, 동학도 차경석의 추종, 도교 “七星經”, 始姓, 음양설, 불법, 선술(仙術)
공 사 1~3	주문, 주부(呪符), 기(氣), 통감(通鑑), 한방의서(漢方醫書), 중국고사(단주, 堯舜), 김봉곡, 진묵의 유불, 굿·유·불·선·관우·易·경학(經學), 玄武經의 諸 혼합사상

농사꾼 김형렬이 강증산에게 당시 호남의 명승 진묵의 기행(奇行)을 알려 주는 이야기가 전경에 실려 있다.

「...전주 부중에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 하루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진묵이 사옥소리(司獄小吏)가 되라고 일러주니, 이것은 적은 직책이라 얻기 쉬운 것이라 말하고 자리를 떴으나 오후에 아전은 옥리가 되어 당시 갇힌 관내부호들을 극력으로 보살펴 주었나이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출옥한 후에 옥리에게 물자로 보답하였나이다. ...」⁴⁾

김형렬은 이외에 남이 모르는 지식을 증산에게 알린다. 이율곡(李栗谷, 名儒)의 숨어 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끄집어냈다.

「...율곡⁵⁾이 이순신(李舜臣)⁶⁾에게는 두율천독(杜律千讀)⁷⁾을 이르고 이항

4) 앞의 책, 행록, 1장 31절

5) 율 곡 - 李珣 1536~1584, 시호 文成, 名臣, 名儒. 후학들을 위해 學規,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지도하였고, 향약(鄉約)을 만들어 민생에 전력했다. 사창(社倉)을 베풀었음

6) 이 순 신 - 1545~1598, 시호 忠武, 名將. 32세에 무과(武科)에 급제. 임진왜란

복(李恒福)⁸⁾에게는 슬프지 않은 울음에 고추가루를 싼 수건이 좋으리라고 일러 주었을 뿐이고, 임란에 쓰일 일에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⁹⁾

동학란이 진압되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은 강화되어, 일본세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무리가 날로 늘어나, 일진회(一進會)가 조직되었다. 일진회에 가담한 사람들중에 증산을 좇는 사람도 있고, 들지는 않고, 증산을 좇는 무리가 생겼다. 금산사 청련암(靑蓮庵)의 승이 있었고 김병욱(金秉旭)이 있었다. 그이에 관한 구절을 소개한다.

「계묘년(1903)에 김병욱은 남원에서 세금을 거두는 관직에 있었으나, 박영효(朴泳孝)의 일본 망명 사건과 관련되어 쫓기는 몸이 되었다가 일로전운 때문에 풀리고 ...¹⁰⁾ 갑진년(1904)에는 국가의 중진, 전주군 장교로 있었다. ...¹¹⁾」

또,

「백남신(白南信)은 전주인 거부이다. ... 십만냥 기증의 증산의 청을 받아드린 사람¹²⁾이나, 그후(1904년) 2월에 체포령을 받게 돼, 증산의 도움으로 화난에서 풀리면서 남삼도(南三道)의 세무관이 되어 몇만냥의 재산을 모았다. ...¹³⁾」

몇 구절은 통해서 카리스마(charisma)를 좇는 사람들은 분류하여 보았다. 아전의 갈망 이외에는 탐욕에서 오는 불륜(不倫)의 벌(罰)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에서 카리스마를 찾는다. 그 욕망에도 증산은 응하였다. 카리스마에게는 지상에서 인정한 벌(罰)과는 다른 차원에서 벌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여기서 외부로부터 흘러 든 점을 지적하면서 교전으로서의 「전경」의 성격을 밝히려는 것이다. 즉 강성상제의 상제로서의 말씀만으로 「전경」

의 공적으로 三道水軍統制使에 오름

7) 두울 천독 - 두울은 두시(杜詩)를 말함. 두시를 일천번 읽는다는 것. 두시는 두보(杜甫710~770 唐의 詩人) 杜詩諺解(그의 詩를 한글로 번역한 것)가 있다

8) 이 항 복 - 1556~1618 임진왜란 때 도승지가 되어 왕을 모시고 임진강을 건넌 으며, 두 왕자를 모시고 먼저 평양에 이르렀고, 왕의 함흥피난을 극구반대하여 왕을 영변에 이르게 하였던 공신이다

9) 앞의 책, 행록, 1장 32절

10) 앞의 책, 교운, 1장 12절

11) 앞의 책, 행록, 3장 25절

12) 앞의 책, 행록, 2장 20절

13) 앞의 책, 행록, 3장 12절

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전경은 교법편과 예시편에서 일대 전환을 보인다. 말하자면 원시 신앙성, 토착적인 신앙성에서 역사적인 기초 종교(基礎宗教, axial religious)성을 띤다. 특히 유도(儒道), 선도(仙道)의 사고방식이 대두한다. 교운 2장(도주 호鼎山, 趙哲濟 行錄)은 앞에서 언급된 신앙을 보완한다. 한 예를 구절에서 적출(摘出)해 본다.

「...그들(종도들)을 보시고 도주께서(趙哲濟) “이 곳(대원사)이 바로 상계에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 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¹⁴⁾

「무진년에 포유문(布諭文)이 선포되었느니라. ...」¹⁵⁾

필자는 이것을 종교회귀(宗教回歸, 즉 기초종교에로의 회귀)라 한다. 기초 종교를 두 갈래로 분류된다. 하나는 동양의 종교이고 또 하나는 서양의 종교인데, 전자는 마음, 후자는 절대 존재, 신 중심이다. 옛부터 있어온 분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신보다는 심, 심령(心靈)중심의 교설(敎設)이 유행되었다. 이것은 풍족한 상품에 인한 고도 소비사회와,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초과학예고(UFO, telepathy)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공해 등에 대한 반감에서 청심(淸心, 廬心, 無心, 直心 등)의 요청 소리가 높아진데 그 이유가 있다. 단순히 아이가 어른이 된 진보 때문만이 아니다.

심령의 주장은 카리스마의 주술성(呪術性)에서의 해방이다. 주술 종교는 무엇이든 권위에 매달리려는 의속감정에 정초(定礎)한 思惟에 근거한다. 교조(敎祖)의 마술적인 권능을 찾으며, 그 권능이 현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보고(寶庫)로 믿으므로 나의 인격, 나의 개성은 될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복을 내려 받는 최다의 조건이다. 심령의 주장은 그런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돼 찾는 신앙이다. 하나님, 교조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악마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다.

심령의 정신은 개체(個體)를 가진 내가 속으로 속으로 파고 內心에 자리한 나(我)를 찾고, 거기서 이웃을 찾는다. 그러므로써 책임있는 주체(主體)

14) 앞의 책, 교운, 2장 21절

15) 앞의 책, 교운, 2장 41절

가 우주질서(宇宙秩序 = cosmos)에 즉응(卽應)해서 하늘 세계를 건설한다. 심령의 정신만이 주술(呪術)에 근거한 “작은 神들”을 조활할 것이다.

선경은 옛사람, 옛사물, 옛세계의 존재가 무너지고, 모든 존재가 재생(再生)한 곳이다. 옛세계에서 그리워했던 꿈의 나라가 실현한 곳이다. 살 수 없이 비참한 곳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곳에서 할 수 없이 꿰던 꿈이다.

종학은 敎典中心의 교학이다. 종학은 자기의 신앙을 바깥 세계에 선포하는 의무도 지니는데, 바깥 세계는 종학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바깥 세계에서 종교 기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종교를 인간의 정신의 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2. 종교의 情感的 定義

포이엘 바하(Feuerbach 1804~1872)는 말한다.

「神의 意識은 인간 본질의 의식이다. 인간은 인간 본질 이외의 어떤 본질도 절대적 신적 본질로 생각하거나, 믿거나, 바라거나, 존경하고 경배할 수 없다. 의식은 인간 존재 속에 있다. …」(기독교의 본질)

이 주장은 칸트, 헤겔의 관념론(觀念論)에 대해서 「아니다, 노(no)」라 대답한 것이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思考하지, 思考가 존재를 思考하지 않는다.」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관념은 思考의 存在이다.」고 그는 말한다. 이 입장에서 그는 말한다.

종교란 무한자(無限者)란 의식이다.(기독교의 본질) 의속감정(Abhaengigkeitsgequehlgeheitsgefuehl)이 종교의 뿌리이다.(종교의 본질)

「종교는 생득적이고, 본성적(本性的)이라는 말은 사람이 종교란 어휘로서 의속감정을 생각할 때에만 그 주장이 바르다. 의속감정이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어떤 존재가 현존(現存)한다.”는 인간의 감정이고 의식이다.」(同上)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본질적으로 무한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종교이라는 것이다. 그 의식이 의속 감정이다. 요컨대 포이엘 박하는

일찍이 종교의 시원(始源)을 “의속 감정”에 두고 그 감정을 인간이 생구(生具)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종교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둘째로 포이엘 바하는 종교의 뿌리인 “의속 감정”의 대상은 “자연”이라 한다.

「의속 감정의 대상, 즉 인간이 의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본래 자연(自然) 이외에는 없다.」(종교의 본질), 「이 의미로서의 “의속 감정”의 종교는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그는 이를 부연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음에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우선 나는 빛(光) 대기(大氣), 물(水), 대지(大地), 식물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이어서 자연에 의속한다고 하는 의식이 종교를 세운다. 이와 같이 모든 생활은四季의 변화에 의존한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四季의 변화를 劇化해서 표상하고 祭禮行爲로 축화한다. 이 극화 제례가 最古의, 본래의 종교심의 고백인 것이다. 이 종교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 자연적인 것이다.(石井裕二著 宗教批 判論)

종교이념은 환상(Illusion)이다.

프로이트(S.Freud 1856~1939)는 인간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환상”(幻像, illusion) 현상으로 보았다. 외부의 자연력(自然力)과 내부의 본능력(本能力)에 억압되어서 이성(理性)을 쓰지 못하고 감정력(感情力)으로 철회하는데서 종교는 생긴다고 이성의 대신에 정서력(情緒力)으로 억압과 싸우는 것이다. 반대감정이 억압을 통제(統制)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통제 과정에서 “환상”은 솟는다. 환상은 아이 시절의 체험에 자리한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할 수 없는 억압, 이해할 수 없는 지식 등은 사람을 아이 시절의 경험선까지 퇴행(退行)시킨다. 퇴행은 상층 의식(上層意識)에서 무의식(無意識, unconscious)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은 억압된 충동·소망·관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성적의미(性的意味)를 지닌다. 무의식은 의식의 배제이나 활력적(活力的)이어서 꿈, 신경증상 또는 일상말, 행동의 단말상(斷末狀)에 여러 형태로 변하면서 나타난다. 인격의 구조와 기능은 무의식 속에 작용하는 마음의 활력과 마음의 억제력의 각도에서 생각되고 있다.

둘째로 인격은 이드(id), 자아(ego), 초아(超我, superego)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드”는 원초적으로 혼돈된 마음의 부분이다. 이 부분이 리비도(libido)의 저장소인데 여러 가지의 무의식적이고, 비 합리적이고, 비 사회적인 충동으로 차있다. “이드”, “리비도(libido)”는 쾌감원칙(快感原則)에 따른다. 언제나 충동적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서 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그러다가 육체의 발달에 따라서 “에고(自我, ego)”가 “이드”에서 벗어난다. “에고”는 「現實原則」에 따라서 인격의 완성을 시도한다. 즉 외부의 현실 조건을 감안하여 충동적 욕구충족을 억제하거나 해서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것이 2차 과정이다. 2차 과정 후에 “초아(superego)”가 분화(分化)된다. 도덕적 가치, 이상(理想)금지 등이 내면화(內面化)하는 과정이고, 3차적 과정이며, 일반에서 말하는 「양심(良心)」의 소재지(所在地)이다.¹⁶⁾

이상의 「기초적 인간」관의 자리에서 프로이드는 「환상의 미래」(The Future of an Illusion 1927년간)에서 종교에 언급한다.

종교는 사람이 외적(外的)으로는 자연력(自然力), 내적으로는 본능력(本能力)에 직면하였을 때에 의존할 곳을 잃은 데서 유래한다. 직면에서 理性을 활용(活用)하지 못하고 이성의 대신으로 「반대 감정」의 힘을 빌려 직면한 것을 억압해서 처리한다. 이런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인생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 과정에서 즉 의속(依屬)의 소재처에서 사람은 「幻想」(Illusion)을 발기한다. 환상은 아이 시절의 경험에 퇴행(退行)해서 그 경험을 반복한 것이고, 이 반복이 종교이고 사람은 아이 시절과 같은 방법으로는 힘과 싸우는데 이것이 종교이다.

그러니 종교는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강박신경증(強迫神經症, obsessional neurosis)과 비교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아이들의 신경증을 일으키는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일어나는 집합적 신경증(collective neurosis)이다.

또 프로이드의 분석은 왜 사람들이 神의 觀念을 만들었는가의 자문(自問)에서 인간의 소망에 근거한 “환상”이라 한다. 그는 그 관념을 원시적 인간 사회(토템사회) 단계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고, 토템사회가 강력한 부친에 의

16) 『종교학사전』, 정신분석 項 참조

해서 영도되는 집단이라 보았다. 그 집단 사회의 어느 시기에 부친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妻)를 빼앗은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고 살해된 부친을 숭배 대상으로 높였다. 그 대상을 神으로 올리고 근친 살해를 금지하였는데 그 금지가 사회의 최고 “타부”(taboo, 禁忌)가 되었다. 말하자면 살해된 부친이 神으로 대상화된 것이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 형태이라고 프로이드는 想定했다.¹⁷⁾

프로이드 이외에도 「무의식」에 근거한 종교론자는 그 수가 적지 않다. 한 두사람을 거론하면, 융(Jung), 엘르 그 손(Eriks son), 프롬(Fromm) 등이다. 이들은 프로이드와 의견을 달리하는 贊宗教者이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선행(先行)된 종교에서의 탈출, 자유로운 의식의 독립을 강조했다. 귀담아 두자.

프로이드가 말하는 토렘 사회의 원시 종교에서 탈출해서 理性에 기초한 종교가 기원전 14세기경부터 세계 몇 곳에서 생겼다. 그것이 Aecularigalcon, 세속화이다. 그 종교를 문명사회의 기초가 된다하여 기축종교(基軸宗教 axial religions)라 부른다. 조로아스터, 불교를 위시한 유교, 도교, 이 뒤를 이은 기독교, 이슬람 등이다. 신 종교가 어느 편의 종교에서느냐는 문제가 오늘날 문제시 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지상의 존재이면서 일상적으로는 불가시(不可視)의 세계에 관계한다. (야스나 충고서)

기원전 630년 이란에서 탄생, 불타의 탄생보다 앞선 서기 170년이다. 조로아스터는 세계 개조주(改造主)로서 영체(靈體)를 가진 인간으로 숭앙됐다. 그의 말을 아베스타(Abesta, 경전)에서 들어보자.

「태초에 “프라와시”(영체)가 있었다. 인간이 탄생과 함께 천계에서 내려와 함께 한다. 영체는 각자의 의무 수행을 상기(相起) 시킨다」¹⁸⁾
「광윤(光輪, 구와르나프)은 의자(義者) 조로아스터에 수반하였다. 그가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는 구상세계(具象世界)의 모든 사람 중에서 의(義)로운 자 중에서 가장 의로

17) *The Future of an Illusion*, III, IV, V Totem and taboo 참조

18) Platon의 idea, Kant의 ratio 등 참조

운 자, 권력에서 가장 뛰어난 권력자, 부(富)에서 가장 가진 자, 영광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 승리에 관해서 가장 승리의 부자이다.」
(야슈드. 19)

조로아스터교의 根本思想을 요약해 본다.

「너희들은 들으라.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흐름(雲)이 없는 마음 갖고 보라. 두 가지 신조(信條)의 하나를 선택,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할 것을, 중대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들을 하여금 깨닫게하기 위해서」
(야슈나. 30)

또, 이 종교는 태초의 이원(二元)善惡, 시간(時間)과 존재(存在)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존재를 시간 속에서 생성(生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에서 존재는 정지(停止)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만물의 창조에 앞서 神과 함께 했다.」(同上)

「시간」과 「존재」는 “하이데거(Heidegger, 1889~1976)”가 미완(未完)에 그친 문제이었다. 그 미완의 문제가 바로 “시간에서 존재어로” 이었다. “하이데거”는 노자의 도덕경의 사상에도 눈을 돌렸다.¹⁹⁾

바로 앞에서 기원전 6, 7백년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기축종교(基軸宗教, axial religions)의 시발자의 종교사상을 표면으로만 생각해 본 것이다. 관념(觀念)적인 사고방식 이전에 정감적(情感的)인 사고를 인류는 한 모퉁이에서 계속하고 있었음을 밝히려 했을 뿐이다. 종교 대신에 신앙의 어휘를 쓴 변명이 되고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19) 장종원, 중국인저, 『老子的 思想』, 日譯

II. 본장 전경의 諸信仰 思想

1. 行錄(行錄)

(1) 生命賦與의 출산(出産)

인류시성(始姓)²⁰에서 인류의 개벽장이 명당²¹에서 오셨도다.

생명은 오늘날 미개발 사회의 무문자(無文字)인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간주된다. 숨, 피로 생각된다. 숨, 피를 일찍이 생명이라 개념화 됐다.(ka, nebish, dumos, prana 등)

오늘날 진일보해서 생명은 우리에게서 존재현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원리로서 비인격적, 비신체적인 것으로 취급됐다.

誕生의 生은 생리적인 난자와 정자의 결합의 산물로 생각하기 이전에는 흔히 뇌(雷)의 불의 힘으로 간주되었다. 生은 힘있는 것, 세력(勢力)이어서 어떤 존재에 침입해서 사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卵生 설화가 호례(好例)이다.

출산의 생은 옛적에 생리적 생명 이전의 주력(呪力)의 생이었다. 생활 현상의 원리적 생(生)이 아니었다. 신비스러운 것이고 우주적인 신령님의 작용으로 신앙됐다. 출산은 주어진 것 이었다. 전경의 예이다.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 사는 강문희(姜文會)가 이평면 서간리의 여인 권양덕(權良德)과 결혼한 후 근친(觀親)이 계시던 어느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 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 석달만에 아기가 탄생하니 이 아기가 상제(上帝)이시다. ... 탄강이 있을 때 모친은 유달이 밝아지는 산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차고 밝은 기운이 온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어 있었

20)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음에 강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原始反本)이 되므로 강성(姜姓)이 일을 맡게 되었느니라.(전경 행록 4장 17절)

21) 봉래산 - 영주산(神仙峯) - 방장산 - 시루산(飢山) 지력(地力, 地氣)을 가진 명당이라 한다. 氣의 사상의 표명

도다.」(행록 1장 9~10절)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고 관후(寬厚)하며, 남달이 총명하여 못
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나무를 심기를 즐기고 초목 한그
루도 꺾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곤충이라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好
生)의 덕(德)이 두터우셨도다.」(전경 행록 1장 11절)

우리는 앞의 두 구절에서 “프리미티브(primitive) 인(people)”의 소위 원시종
교의 생각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문명인들의 남녀 교합에 인한 출산은 이
곳에서는 불덩어리와 여음, 향과 여인의 몸, 방(房)과 향(香), 선녀(仙女)의
산부의 시봉(侍奉) 등의 종합으로 대체(代替)됐다. 이런 점에서 문명인은
원시 종교의 思考方式을 학습할 수 있다. 비이성적이라 하여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불덩어리는 여인의 음(陰)을 태웠다. 그리고 음혈(陰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출세하여 화신(火神)이 된다. 이 구절에서는 화신
대신에 금불 미륵이 된다. 그러나 전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
하(降下)」를 말한다.

「인류와 신명계의 접맥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역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 방점 필자)하다가 이 동토(조선을
지칭)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
가 최제우에게 제세 대도를 계시 하였으며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
敎)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²²⁾

그 미륵은 지상인세(人世)에 하강하는 미륵이고, 창생제도한 후에 도솔천
으로 제도된 증생과 함께 상천(上天)하는 미륵은 아니다. 이 하생(下生)한
미륵의 모습은 여의주를 입에 물고,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를, 그리고 왼손바
닥에 임(壬)자가 있고, 오른손바닥에 무(戊)자를 쥐 모습이었다.²³⁾ 여의주를
입에 물었다는 것과 두 손바닥의 두 글자는 불교의 미륵이 아니요, 下降地
도 지역화되어 있다. 행록의 미륵은 하강의 제도주(濟度主)이고, 상천의 미
륵은 대순진리에서는 도통선인이다. 여기에 신 종교의 본수인 혼합성

22) 『전경』, 교운, 1장 9절

23) 『典經』, 행록, 2장 16절 참고

(syncretic)이 있고 미륵의 승천까지에는 기나긴 시간이 있게 되니, 고를 벗을 날이 오기 요원해진다.²⁴⁾

2. 公事 — 役事 —

公事는 종교적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Weltanschauung, 독일어)은 세계상(世界像)적인 세계관(Weltbild, 독일어)과 구별된다. 후자의 세계상(Weltbild)은 세계를 이론적(理論的), 객관적(客觀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세철학(Dilthey, W - 1911 著)은 세계관을 인생관과 관련을 지어서 생(生, LeBen)을 평가(評價)하기 시작하여 종교적 세계관에 접근하였다. 이러면 종교 세계관이 세계관(Weltbild)의 하나가 된다. 이 입장(양자혼합)에서 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여 체계화하려는 연구 경향이 생겼다. 이런 경향에서 종교적 세계관의 특징과 세계관의 종교성(religionsness)이란 두 개의 문제가 야기된다.

종교적 세계관은 일단 다른 류(類)의 세계관과 구별되는데 보이지 않는 힘(力)의 체험에서 존재(存在)를 설명하는데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려고 한다. 따라서 존재를 평가(評價)하려고 한다. 사물의 단순한 인식에 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의 종교사상의 흐름속에서 오늘날 「신종교」적 세계관이 대두되었다.

24) 자료를 통해서 대순사상형(思想型)을 집어 보면, 속(俗)대 성(聖)의 유형(類型)이다. 그 뜻이 기존의 미륵사상에서 구해지면서 음양의 임무에서도 구해지고 있다. 聖은 어떤 유형의 종교이든 종교의 기본 개념이다. 聖은 원시 불교의 경우 신앙대상이 아니라 출가도(出家道), 팔정도(八正道), 사체(四諦) 등을 의미하고, 기독교에서는 神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격리성(隔離性)이다. 神은 聖이기 때문에 神聖하다. 말하자면 聖은 神의 주권, 유일성(唯一性), 고귀성(高貴性)을 의미한다. 이해 대해서 행복편에서의 聖은 탄생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더럽혀진 여인을 하늘의 불덩어리로 태우고 냄새나는 여인의 몸, 집안, 주변 환경을 하늘의 향으로 청결케한 깨끗함, 부정에 대한 정화(淨化)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의 언급과는 달리 도덕 의식이 발달한 문화 사회의 사상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사상적으로 성 사상을 내포한 인간상(人間像)을 묘출하고 있다.

또 생명부여의 성(聖)은 개념적이 아니라 감정 범주(感情範疇)의 것이고 의식 범주(意識範疇)의 것이 아니다. 감정 범주란 X(모르는 것)에 대면해서 캐고 캐어 내서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이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 세계관에 준거(準據)해서 公事의 세계관을 구성하려 한다. 그러나 시도(試圖)이다. 먼저 전경의 公事편에서 자료를 모아서 公事的 世界觀의 요인(要因)으로 삼는다.

(1) 造化, 道術, 풀이의 思考

공사의 종교적 세계관은 대체로 네가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경 구절의 내용을 분류한 것이고, 대순진리회의 교리나 교의가 있어서 분류한 것은 아니다.

먼저 구절들을 양분할 수 있다. 서로가 대조되는 두 극(極)을 세워서 양극간의 역동적(力動的, dynamic)인 긴장관계에서 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들을 하여금 어느 쪽을 선택하여 자기의 생활방법을 결정하게 하려고 한다. 전경에 보이는 양극을 대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명천(明天)과 노천(老天)
- 나. 후지(厚地)와 박지(薄地)
- 다. 양기(陽氣)와 음기(陰氣)
- 라. 강자(强者)와 약자(弱者)
- 마. 승자(勝者)와 패자(敗者)
- 바. 권자(權者)와 천자(賤者)
- 사.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 아. 흥(興)과 망(滅)
- 자. 명당(明堂)과 열지(裂地)
- 차. 생(生)과 사(死)
- 카. 저 세상과 이 세상
- 타. 신명과 사자(使者)와 인간
- 파. 신통과 도술

사람이 의지할 곳은 저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아니다. 절대로 무한한 神이나 천법(天法, 理法)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상식이나, 과학의 논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비합리의 진실이 있다고 승인하고, 거기에

자신의 살아갈 근거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원(二元)의 대조를 예상하고,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택하는 사고 방식이 兩元論이다.

이런 대조는 한층 심화(深化)해서 자연과 초자연, 사의(思識)와 불가사의, 일상과 비일상, 심상(尋常)과 이상(異常) 등의 두 형이 설정된다.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택하는 쪽에 절대항(絕對項)을 두고, 거기에 구극(究極, ultimate)을 발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이원론이라고 하나, 「生, 超, 不, 非, 異, 否」에 중점이 있는 비중을 달리하는 이원론이 종교 세계관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구극이니, 절대니, 무한이니 하는 思考는 “불균등의 이분법(二分法)”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신앙의 思惟이다.

신통한 도술이란 사고 방식도 불균등한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런 능력이 보통 아닌 특수(特殊), 비일상(非日常)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카리스마(charisma)로 인정된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따라서 자신 스스로가 “카리스마(초능력자)”로 자인한다. 타인으로서의 평가(評價)가 따른다는데서 특수인이고, 특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동굴 생활의 단련, 단식, 금욕 생활 등의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위 수도를 실천한다. 그런 수도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초능력을 신(神)으로부터 부여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첫째, 우주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언급하려면. 이 부분은 전통적인 교리적 측면의 교학(敎學)부분에 해당될 것이다. 자료 1²⁵⁾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宇宙(교운 2장 55절)는 - 교운 2장은 태극도 도주의 말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海印)이요, 해도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水氣)를 흡수하여야 생장(生長)하느니라. 하늘은 百五天(중판된 전경에서는 三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우주 형성(形成)은 기성의 전통 종교의 교학을 빌려 나름대로 조성(組成)된 것으로 짐작된다.

25) 자료 1)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부록】 참조

삼계삼십육천이라면 그 사상은 11세기 초에 저작된 「운급칠첩(雲笈七籤)」에 나오는 말이고 삼계는 천·지·인의 세 세계가 아니라, 천계(天界)의 옥청(玉淸), 상청(上淸), 태청(太淸)의 세 청경(淸境)을 말한다. 서울의 삼청동·삼청공원은 옛(李朝) 삼청정이 있던 곳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운급칠첩」의 천계 사상에 의하면, “우주는 무(無-노자 도덕경의 道)에서 묘일(妙一)가, 여기서 삼원(三元) 그리고 최후에 만물이 생겼다.(生成) 삼원에서 천보군(天寶君), 영보군(靈寶君)이 화생(化生)했다. 삼청경은 세보군(三寶君)이 각각 머무는 곳이고, 삼보군은 본래 원시천존(原始天尊)인데, 최고 신이다. 또 천계는 욕(欲), 색(色), 무색(無色)으로 나뉘 욕계는 六天, 색계는 18天, 無色계는 四天으로 나뉜다. 四天의 위에 삼천경이 있다. 삼청경의 위에 대라천(大羅天)이 있고 그 중앙에 현도옥경(玄都玉京)이 있다. 이 곳에 원시천존이 거숙한다. 그리고 삼청경의 중앙·좌우의 세 궁전에 선왕(仙王), 선공(仙公), 선대부(仙大夫)가 산다.

이상의 高位의 신들 아래에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신, 귀신, 영체(靈體), 그리고 황제(黃帝), 요·순, 시황제, 고조(漢의 高祖), 관우(關羽) 등의 신이 있다.

이상은 우주관에서 만물생성 사상, 화생(化生) 사상, 그리고 신들은 정점(頂點)을 中心으로 한 신통(神統)을 조성한다. 즉 “하이라이키(hierarchy)”이다. 이 하이라이키 체제의 사회에서는 高位에 있는 者は 부(富)만이 아니라, 덕(德)이 높은 者로 인정된다. 여기서 신명계에서나, 인간계에서 怨恨이 발효한다.

둘째, 의식·의례식의 도술에 의해서 선천(先天=過去)은 후천(後天)으로 개벽된다. 따라서 도술은 시원(始元)에서 선천 세계를 형성하고 분화한 원리(原理), 법칙(法則)을 재활(再活)시키는 종교상의 술(術, machanism)이다. 기술의 술과 다른 점은 이 술이 기(技=technic)인데 대해서, 저 술은 주(呪, magic)인데 있다. 말하자면 도술은 주술이고 기술이 아니라는 차이이다.

도술은 「태초에 원리(原理=principle)가 있었느니라.」는 원리에서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하셨다.」는 원리에는 설 수가 없다. 전술한 신명, 천존관에 모순되는 듯 하나, 그 존재도 원리에서 생성된 존재들이다.

점, 무꾸리, 부적, 살풀이, 푸닥거리, 기도, 제(祭), 재(齋)의 의례(儀禮), 소지(燒紙)의 행의(行儀), 주문낭송, 우보(禹步) 등의 방술(方術)이 도술이다. 도술의 개인적인 최고 목표는 무병(無病), 불사(不死)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만국의원(萬國醫院, 漢藥局)이 운영되고, 강성상제가 의원(醫員)이 되었다. 이 약국을 도술약국(道術藥局)이라고 이름하기도 했으니 「元亨利貞 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 烈風 雷雨 不迷 禹步 相崔 登陽明」²⁶⁾의 곳이었다.

도술의 교리적 사상을 훑어본다.

생명의 울동, 우주의 일체성(一體性), 일체존재(一體存在=事物)을 융합(融合)하는 도가니(감과=坩堝)에서 퍼내는 관념을 공사의 도술은 지닌다. 그 도가니에서 영능자들이 퍼낸 어떤 주술을 자기의 해석의 지주(支柱)로 삼는 것이다.

도수의 으뜸가는 생각은 앞에서 보았던 신(神)적인 것들이 실재(實在)인 양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 실재들이 권능자(카리스마)의 권능 하에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一 이면서 쏠」(Plotinos -그리스 고대 철학자)의 우주 일체성이 있어서 각기의 사상(事象)의 사이에 규칙적인 대응(對應)이 인정되고 있다. 이 대응이 전경이 말하는相生이다. 그 대응은 상사적(相似的)이다. 인간 존재는 대 우주와 상사(相似)한다는 思考이다. 「대체 인간의 부분이면서 원형(原型)의 한 요소(要素), 식물, 지성(知性), 척도(尺度), 이성(理性)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대지(大地)는 인간의 육체와 같이 순환하고, 호흡하고, 소화(消化)한다.」는 것이 상사(相似)의 대응이란 思考方式인데, 이 따위의 사고 방식은 관념론적(觀念論的)인 물질관(物質觀)이라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우주는 기(氣=魂)로 간주되고, 사물적 존재는 기(氣)의 침입(侵入)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다. 불덩이의 여인으로 침입은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이 침입을 도술, 또는 상생으로 생각된다.

이 상사(相似)란 생각에서 복점(卜占)·풀이 등의 주술(呪術)적 행의(行儀)는 이루어진다.

26) 『전경』, 공사, 2장 9절

(2) 大權(카리스마, charisma)의 思考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드리라. 너희들도 치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에 뜻을 이루리라.

대권의 권력은 물리적인 힘과는 다른 세력(勢力)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초자연적인 형식의 힘이나 작용이다.

그것은 어떤 존재의 고유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첨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전이성(轉移性, transmissibility)과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옮기는 전염성(傳染性, contagiousness)을 갖는다.

본래 초자연적인 힘,神力인데 사람, 특히 수련(修練)을 거친 특별한 사람에 잠복하는 속성적(屬性的)인 것이다. 재언하여 한 사람에게 부수된 힘이다. 고 볼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보면, 권능은 치성(致誠)의 수련을 거친 당사자에 덧붙여진 힘, 성능(性能)이다.

「... 불음 불식(不飲不息)의 공부(수련)를 49일 지나 ... 오룡허풍(五龍嘘風)속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으시니 ... 」(행록 2장 12)

「... 시루봉에서 공부하시다가 ... 호둔(虎遁)하고 앉아계시기도 하고 ... 산천이 크게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시고, ... 이따금 산 밑에 있는 샘터 너머에서 우시기도 하셨다.」(동상 7 ~ 9)

1) 치병(治病)의 권능

「이경오(李京五)의 앓은뱅이병을 진맥하고 “진실로 괴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적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 고 하시고, 강성상제께서 손수 다리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오가 명하신대로 하니 곧 낫으니라」(제생)

「치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시천주(侍天主)를 아침마다 일곱번씩 외우게 하여 완쾌하게 하셨다」(제생)

「상제께서 죽은 아이를 무릎위에 눕히고 배를 밀어 내리시며, 허공을 향하여 “미수(眉叟)를 시켜 우암(尤菴)을 불러라”고 외치고 침을 흘려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 주시니 그 아이는 곧 향문으로부터 시추물을 쏟고 소리를 치며 깨어나니라」(제생)

「문등병을 중도들에게 대학우경1장을 외우게 하여 고치셨다」(제생)

이상의 여러 방법으로 여러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제생편에만 70여가지에 달한다. 이 예로 보면 강성상제는 치유신의 카리스마 성격을 띤다.

2) 원풀이의 권능

신축년(1901, 31세)에 49일간의 공부 끝에 강성상제는 「미륵」임을 선포하면서 인류가 포한(庖漢)의 존재임을 전제한다. 그래서 세계에 한(恨). 원(怨)이 비만하였고, 그 원한의 탓으로 세계가 원시(原始 = 태초)와 같지 않고 갖가지의 겁액이 생겼다. 그리고 원한은 사람들의 「잘못」에 인하여 생긴 것이고 어떤 종교에서와 같이 인간의 神에의 순종이탈행위 즉 원죄(原罪)의 탓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원한은 대인과의 불만관계에서 생긴다. 행록편은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아이와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배우다가 얼마후 병들어 죽었노라.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解冤)을 구하는도다 ...」라 하여 원한이 생기는 경유에 언급하고 있다. (행록4장 54)

또 원한에 관해서 「인간, 사물의 「상주」에서 원한이 생겨 쌓이고 쌓이므로써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공사1장). 무의탁(無依托), 소망좌절, 패전(敗戰), 청탁의 좌절, 불만, 시비(是非) 배은망덕 등에서 원한이 생기고 원한이 척(慼)이 되어 보복이 생긴다. 그런 원한의 반복속에서 상제는 해원하는 카리스마가 된다.

즉,

「상제(강성)께서 옛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시작하시니. ... 인류의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요(要)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라. 단주가 물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에서 죽게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이르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

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포한(抱恨)속에서 해원자(解冤者)가 되는 것이다.

공사는 천지인 삼계에 거친다. 삼계가 서로 연계되므로 하나의 세계가 원을 품으면 따라서 두세계가 원을 품는다. 원을 가장 짙게 품은 곳은 인간의 명부세계이다. 명부계의 사람들 (혼체 魂體)의 전부가 원을 품고 있다. 죽음자체가 원이고 한이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의 원과 죽음의 원을 품은 것이 명부의 영체(靈體)들이다.

따라서 원풀이 공사는 명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전경 98쪽) 공사의 방법은 일정하지 않고 그때와 원의 원인에 따라서 카리스마의 의지에 따른다. 말 씀, 단순, 주육등의 제물, 소지(燒紙), 또는 모의주술(模擬呪術)이 공사의 방법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전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사명기(司命旗)를 화춘(化春), 춘생(春生), 부활(復活, 再生의 뜻)이란 이름을 가진 종도의 집앞에 높이 세워주므로써 풀었다. 이 공사는 다음과 같이 처결되었으니, 즉

「피노리(避老里)의 이화춘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에서 가장 높은 소나무 한그루와 남쪽 양달의 황토(黃土)를 파 오게하고, 백지 네장을 청홍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나무를 잡앞에 세우게 하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강성께서 “이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가 없어서 한(恨)을 품었으니, 이제 그 깃발을 세워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다.」 (전경129쪽)

선령신(先靈神)들의 원한을 마패(馬牌)를 만들어 그들에게 바치는 의례를 하였다. 마패는 옛적에 범죄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암행어사의 신분증이었다. 암행어사는 그 마패를 범죄자들에게 제시하고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 마패를 선령신들에게 봉납하여 불효자를 응징하여 원을 갚게한 것이다.

「... 양지 이십장으로 책 두권을 만들어 책장마다 손 도장을 찍고 한 책을 대보책(大宝冊), 또 한권을 醫藥卜筮種數之文이라 이름하고 마패(馬牌)로 삼으셨는데, 醫藥卜筮種數之文의 마패는 진시황(秦始皇)의 원을

풀어 주는 주력(呪力)을 행사하는 서물(庶物, fetico)이다. 또 청(淸)에게 대중화를 빼앗긴 중국민의 원은 강성상제의 임석하의 모의재판으로 청이 중국민에게 정복한 땅과 사물을 반환하라는 판결로 풀이됐다.」(공사 3장 17. 18 참고).

「... “귀신은 진리에 지주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말씀하시고 벽에 글을 써 붙이셨다. 그글은 이렇다.」.

※ 이것은 쑤에 글월을 **한 부적이다.

「시천주(侍天呪) 대신에 태을주(太乙呪)가 원풀이에 쓰였다. 태을주는 낭송되었다.」²⁷⁾ 또 운장주도 쓰였다. 그것은 「天下英雄關雲長 依慕處 近聽天地八位諸將 六丁六甲六丙六乙所率諸將 一別 변형邪기 음음급급如 律令 사婆아」(전경164쪽).

주문은 주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읊는 말이며, 일정한 문구(文句)를 되풀이 한다. 이 반복은 효과의 강화를 노린 목적이다. 그런데 전경의 주문은 이곳에서 해원(解冤)의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으나, 같은 주문일지라도 질병의 회복, 무사식재(無事息災)에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주문속의 이해치 못할 문구가 포함되는데, 주문의 효과는 신비성, 미지성(未知性)에 있다. 주문의 신비성은 미지(未知)에만 잠복하지 않고 강성상제는 자신이 작성한 한문(漢文), 古語에도 잠재하며, 여율령(如律令)은 관청에서 쓰였던 문구, 사파아(娑婆阿)는 힌두교 불교에서 쓰인 용어이고 음금은 도교에서 쓰인다. 주문은 신명세계의 존재에게 간청, 협박하는 말의 기호(記號)가 된다.

우리는 전경에 나타난 구절을 추리면서 지혜-질병-원한을 대상으로 대권을 구사하는 카리스마(charisma)사상을 피력하였다. 이 피력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는 미지(未知)의 것에 자극되어, 그것을 알려고 한다. 이 욕망에서는 이성(理性)을 빌리기보다는 감각의 직감을 빌린다. 이 직감에서 모르는 대상을 대면해서 돌이키니 꽃이니 혹은 물이니 하며, 또 공기와 바람을 구별한다. 직감에서 착각하는 것도 알아낸다. 말하자면 신비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에 알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리하여 필자는 선직감(先直感) 후이성(後理性)이란 思考를 가지게 된다. 이로서 선신앙(先信仰) 후종교(後宗教)를 내세우게 되고, 대권, 가리스마도 직감부분이 있는 후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권

27) 『전경』, 교운편, 1장 20

이라고 하기에 앞서 이상(異常)함, 괴상(怪常)함을 직감한 끝에 대권(大權)이란 판단이 뒤따랐다고 생각한다. 병(病)을 보고난 뒤에 괴병(怪病)의 판단이 솟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조화의 공사가 따르는 것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대권이란 종교학에서 말하는 「누미노제」(noominose)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3. 교법(教法)

교법은 공사와는 다르다. 교법은 전적으로 「말씀」(logos)이다. 보통의 말이다. 그러나 그말이 교법으로 신앙상 승인되는 것이다. 인식이 아니다. 현세에서의 탈출(exodus)의 힘이 된다.

망하려는 세간살이를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배포(配布)를 차리라. ...
붙들고 놓지 않으면 따라서 몸마저 망하게 되라. 잘 깨치어라.

교법은 신앙을 실천에 옮기는 기초를 이룰뿐이지 사회의 윤리, 도덕이 되지 않는다. 교법은 윤리문제가 아니라 신앙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법은 신앙과 대응된다. 교법의 조항을 준수한다하여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유지, 나아가서는 다수의 신앙의 동일화(同一化)에 그 목적을 둔다. 교법준행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법에서 무엇이 이해되는가.

첫째 교법은 강성상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인간양심의 법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仁義禮知信의五常이나 誠敬信의 三綱은 교법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인간 심정의 법칙에 불과하다. 三綱은 인간고유의 도덕성(道德性)의 존엄을 말한것이다. 극단적으로 표명하면, 도덕·윤리의 완전한 수행이라할지라도 그 완수는 선(善)이 될지언정 선을 초월한 신성(神聖)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하나, 초월은 결코 신앙생활에서의 무법치, 무도덕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법이 법칙, 도덕을 강화할것이다.

둘째 교법은 교법의 임무가 다 수행되었을때 어떻게 될까는 문제가 야기

된다. 그때 교법은 존재의 자리를 잃을 것이다. 교법은 인간을 그런 자리에 인도할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경은 그런 자리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때에는 인간이 선경에 옮겨진 것일까.

전경속의 교법은 다분히 인격(personality)의 형성과 치세(治世)의 실현을 지향(志向)하고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적이다. 수기는 인간자신의 도덕완성, 치세는 오륜(五倫 = 君臣, 父子, 夫婦, 長幼, 兄弟) 봉우(朋友)의 대인관계에 귀납되고 오륜의 도덕적 기준은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의 다섯 덕목이다. (五常). 그리고 중국의 주대(周代)에 가족제도의 종법(宗法)이 생겼다. 그러나 유교식 윤리·도덕·종법을 전경은 선천시대(先天時代)의 법(法)이라하여 포기(拋棄)한다. 그 포기가 윤리·도덕·종법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세의 깨침은 아래의 항목에서 찾아진다.

1장 국가사회에서 :

「충효열국대강. 연이나 (忠孝列國大綱然
 나라가 충에서 망하고 國亡於忠
 집은 효에서 망하고 家亡於孝
 몸은 열(烈)에서 망한다. 身亡於烈)
 烈婦에 관해서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한다”고 하셨다.²⁸⁾

2장 불신의 깨침

「나(강성상제)를 믿고(信), 마음을 정직히 하는 (正心)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노라.」

「...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강라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각일지라.」

「남이 나에게 비소(誹笑)하는 것을 비수(匕首)로 알고, 또 조소(嘲笑)하는 것을 조수(潮水)로 알아라. 대장이 비수를 열어야 절진을 해칠 것이고, 용이 조수를 열어야 천문에 오르나니라.」

28) 앞의 책, 교법, 1장46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德)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吉星)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니라.」

3장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이 셀 틈없이 도수를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하여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히하여 마음(心)과 업(業)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罪)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이 뿔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차 있는 곳은 큰 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니라.」

이 말씀에서의 깨침은 한마디로 마음 ……하고 있으나, 종전의 분석적인 논리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힘이다. 이점에서 마음은 양심(良心)이라고 대응하기도한다. 사고전환(思考轉換)에서 우주·사물·인생의 진상(真相)이 체득되어서, 종교적 인생관 세계관이 확립된다. 이확립이 소위 덕(德)이고 도덕의 덕은 아니다. 도덕의 덕은 인생의 최고의 도달점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전환에서의 덕은 탈출하는 작용이다. 이탈출을 “엑크하르트”(Eckhart, M.J. 독일의 神秘思想家 1260?~1327)는 「돌파」(突破)라 하였기니와, 덕(德)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이고 지적인 경험의 사실을 구극적인 깨침으로 돌파하는 능력이라 하겠다.

필자는 종교적 덕의 교법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덕을 마다하다고 하였다. 교법은 윤리도덕의 항목의 준수실천의 법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였다. 대순진리회의 신도는 적어도 강성상제의 말씀인 교법을 윤리·도덕의 덕목으로 합일하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식태도는 깨침이 아니고, 한낱의 지식을 얻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기우에서이다. 신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선천의 것이고, 깨침은 후천의 匡球이다.

광구는 우주의 내재적인 원리의 이법(理法)의 발견에 있다. 그러므로 발견은 무지(無知)에서는 불가능하고 박람회(박식)의 지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법은 첫머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코 항목의 준수가 아니라 탈출, 돌파의 능력을 기르는 초력(超力)이다. 「智慧勇力」이다.

III. 結章

典經에 나타난 종교사상의 제상(諸相)

1. 말세(終末)사상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주대운(無主大運)이 열리나니 ...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²⁹⁾

말세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最終)사물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어휘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이 세상과 사람의 위상(位相)을 반성하는데 지어낸 어휘이고 근세이후의 조어(造語)이다. 또 말세를 종말이라고도 하는데 종말은 「죽음」(?)의 유래어이다. 이래서 말세라 하면 「끝」, 「죽음」, 「멸망」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차 세계대전이후의 조어이니, 과히 「에스카토스」(죽음)사상이 세계에 대두되게 된 사정이 알만하다. 우리내에 민족적 위기상황이 폭발할 때마다 「개벽」사상이 폭발하고 개벽장의 출세를 고대하는 민족적 갈망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세(종말)의 의미내용도 달라져 온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시간의 종말」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의 소위 무문자(無文字) 족속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여행(葬送, 장송)으로 알고 있고, 문자를 가진 민족들은 영원과 시간의 종결, 역사의 전멸이란 형태로 말세(종말)를 이해한다. 종말(말세)을 역사의 저편시간이 끊길때의 것으로 이해한다. 이점에서 보면 종교이념은 본래 종말(말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종교라하면 적어도 최종(最終)의 것을 전제하여 형성된다고 해야할것이다.

최종의 사물, 죽음, 전멸에서 구극(究極)을 인류는 찾았다. 그것이 「영원」(永遠)이다. 영원은 잠시(暫時)이고 흘러가는 지상의 존재에 대해서 초월적이면서 그 존재의 근거이다. 또 목적이기도하다. 이 의미에서 현존(現存)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존재가치를 잃었다. 그러므로 현존재를 살리려면 그존재가 자신내에 영원성을 형성해야한다. 그 형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본래부

29) 앞의 책, 예시, 17

터 시간, 역사속에 단절시간, 단절된 역사란 관념을 생각했다.

종말(말세)은 동질성(同質性)의 시간을 끊은 시간이다. 동질성의 시간은 보통이고 끊긴 시간은 가치있는 특수한 시간이다. 예컨대 대순년호는 보통 시간흐름을 막은 시간이 되는 따위이다. 종교에서 아니라도 나의 탄일, 시년은 보통시간을 끊은 시간이다.

말세(종말)는 일상생활이 영위(營爲)되는 통속적(通俗的) 시간의 흐름을 막고 초시간(超時間), 즉 영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영원이 제시된다. 그런데 전경에서 때때로 말세를 「해원시대」로 표명한다. 또 후천시대로도. 이 해원 후란 말을 우리는 포한(抱恨·抱冤), 선(先)의 전환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선이 끊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인류는 종말(말세)에 있고 영원에 들지 못했다. 아직도 불안, 불안정의 세계에 있다. 이래서 말세(종말)는 「영원」을 제시하면서도 장차란 미래성을 표명한다. 기대(期待) 참음(耐) 소망을 제시하면서도 말세(종말)신앙은 ①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끊길 시간속의 생활인이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임」, 과 ② 「파멸에 직면한 역사이어서 파멸을 면하는 길 즉 피난길을 찾아야 한다」함을 계시(啓示)한다. 대순의 피난길은 우주만상을 존재케한 「원리」(原理, Principle)의 법칙의 운회(運回)라 하겠다.

2. 내세(來世) · 재래(再來) 思想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일순 호남서신사명(湖南西神司命)이라 쓰게하고, 내가 천하사(天下事)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하노라.³⁰⁾

이 구절에서의 「떠나려한다」가 내세를 의미한다. 갈 곳은 死地이다. 사지는 천상, 지상의 어느곳, 또는 윤회사상에 의하면 생물이나 용(龍)과 같은 상상적인 생물이다. 이 경우는 윤회(輪廻)사상으로 옮겨진다.

떠나가는 곳은 대체로 그 성질에 따라서 계속논리(繼續論理)와 응보논리(應報論理)에 기초한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내세가 현세의 반영한 곳이고, 후자는 내세가 현세의 보수(報酬)로 믿어진다. 예를 들자면 전자는 무문

30) 앞의 책, 행록, 5장 33

자사회에, 후자는 교리종교(敎理宗敎), 문명사회에서 흔하게 보인다. 또 내세는 죽음(死)을 통해서 갈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고, 내세와 현세가 상호 영향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고(思考)가 있다. 후자가 정령관(animism), 무격관(巫覡觀, shamanism) 이다. 이런저런 신앙을 기초로 한 내세관에 따라서 墓, 廟, 神殿, 聖地가 조영(造營)된다.

묘(墓)는 엄밀히 말해서 「죽은 자의 집」이었다. 이 사자의 집은 사체(死體)를 묻은 곳으로 현대인들은 생각한다. 히브리인은 가족공동묘를 갖는데 「세계의 묘」라 했다. 오늘날의 공원묘지가 「세계의 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되, 「사자의 집」의 명칭에 모방해서 「사자의 마을」이라고나 불러둔다.

묘(墓)는 집웅과 조(朝)의 합신문자인데 선조의 모습, 아(兒)가 있는 곳이다. 종묘에 해당, 옥내에 선조의 존상(尊像), 위패(位牌)가 있는데 현세의 수호소이다. 붕어(崩御)한 황제묘외에 촌묘(村廟)가 중국, 만주에 많다.

신전은 神이 거주하는 「神의 집」이다. 신상(神像)이 봉안되어 있고, 신관(神官)들이 거주지는 아니고, 제사장(齊祀場)도 아니다. (그리이스의 나오스 naos). 대순진리회의 도장도 이런 의미에서 신전인데 「상제」의 신격(神格)은 인신(人神)이다.

성지(聖地)는 글자 그대로 종교와 결부된다. 앞에서 본 묘·신전은 성지인데, 본래는 타부(禁忌)시(視)된 자연의 장소를 의미했다. 도교(道敎)는 특히 산을 신선들이 사는 성지로 간주하였는데 「전경」(典經)도 그 전승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성지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봉래산-영주산-방장산의 삼신산(三神山), 곤륜산, 구미산, 구월산, 금산, 내장산, 모악산, 면산, 봉서산(鳳樓山), 승달산, 회문산(回文山)등이다.

이러한 곳들이 내세, 재래(再來)의 세계이니, 보이지 않는 하늘세계만이 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生과 死 思想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정기(精氣)만 흠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³¹⁾

이 구절에 따르면 생과 죽음 정기(精氣)가 신체에 거숙(居宿)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기가 신체에서 떠나면 죽음, 신체에 거처하면 삶(生)이다. 정기와 기식(氣息), 혹은 영·혼이 생의 본질이다. 이것들의 떠나가는 곳이란 생각이 전술한 來世, 또는 再來, 再生의 思想이다. 그것들이 가 있는 곳이 성지 등의 사상이다. 그리고 생을 유지하고 있는 본질인 정령, 정기, 혼등은 멀하지 않고, 체(몸)를 떠날 뿐이다. 그것들을 떠나보낸 몸이 죽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해(尸解)사상이다. 시해에 관해서 전경은 아래와 같은 진묵(震默)과 봉곡(鳳谷)의 설화같이 이야기를 전한다.³²⁾

「...“내가 8일을 한정하고 시해(尸解)로서 인도에 가서 범서와 불법을 더 익혀 올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고 곧 입적하니라. ...봉곡은 방문을 억지로 열고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니라.”고 말하면서 ...화장하노라.」

한마디 첨부하면 영, 혼, 정기등은 원시인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었다. 인간존재를 다른 생물의 존재와 달리 영·혼·정기등이 몸에 침입한 것, 즉 영체, 혼체, 기체의 존재로 표명했었다. 思考發達로 인해서 오늘날 그 본질을 의식(意識), 정신(精神)으로 표명하거나 생명체라 한다. 이런 사상은 전경에는 없다.

4. 심판(審判), 죄(罪) 思想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 곳이니라. 아직 옹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³³⁾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天罰)을 받고, 적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神罰) 혹은 인벌(人罰)을 만나니라.³⁴⁾

지금은 신명시대니라. ...새 기운이 돌아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³⁵⁾

31) 앞의 책, 행록, 5장 32

32) 앞의 책, 공사, 3장 15, 참조

33) 앞의 책, 교운, 2장 21

34) 앞의 책, 교법, 1장 32

35) 앞의 책, 교법, 3장 5

천벌, 신벌, 인벌의 사상은 중국 도교의 공과사상(功過思想)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사상에 준거해서, 세가지 계차(階次)를 보면, 다분히 12세기에 성립한 중국의 전진교(全眞敎)의 것에 흡사하다. 즉 종교적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에 대한 형벌(刑罰)이다. 법조문의 몇조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천벌이란 식이다. 전진교의 계율(戒律)위반에 청규(淸規)란 처벌조항이 있다. 이것이 공과사상이다. 전진교의 계율은 五戒十善부터 三百戒까지 있다. 五戒는 살생, 기주(嗜酒) 입(口)과 배(腹)가 다른 것, 도적, 음색이다. 청규(淸規)는 跪香부터 還俗까지 六種, 各項三十六條로 성문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종교행위위반을 죄악(罪惡)과 법률위반의 범죄(犯罪)가 엄격히 분간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대순진리회의 宗憲 信條의 條項은 도덕의 조항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죄(罪)는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강일순을 강성상제로 승인하지 않는 마음(精神이나 意識)을 일컫는다. 그 의식에 따라서 생기는 의식(마음), 예컨대 망어(亡語)따위이다. 죄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정신, 의식의 가짐이다. 그래서 정신수양이 강조된다. 그렇다고하나, 기독교, 정토교(淨土敎)에서 생각하는 원죄인관(原罪人觀)은 대순사상에 없다. 그러나 도덕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정령(定令)은 혼합되고 있다. 예컨대 종지(宗旨)의 음양합덕, 신조의 四綱鈴이나 三要諦 목적에서의 무자기등은 다분히 도덕행위 규범을 말한다 할 것이고 종교적인 정령이라 보기 어렵다. 죄는 양심문제이다.는 평가는 이런 思考가 대두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죄의식이 거의 대순사상에 들지 않는다. 그러한 종교이다는 승인이 필요하다.

5. 선경(仙境) 思想

후천선경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질투·전쟁이 끊어지리라.

후천선경에서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威武)와 형벌(刑罰)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法理)에 맞도록 다스리라.³⁶⁾

36) 앞의 책, 예시, 80-81上半

선경은 신앙상 타계(他界)사상이다. 타(他)란 죽음, 또는 사후(死後)의 세계를 의미하나, 현실세계에 대응되는 사람들의 관념상 묘사되는 별세계일반을 말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내세(來世)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타계사상의 특징의 하나는 신흥성을 띤 종교의 그 사상이다. 이 사상에서는 타계와 현세의 친근성이다. 생과 사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타계와 현세의 출입이 아주 쉽다. 전경은 이런 면모를 보인다. 타계와 현세의 왕복은 신빙상태(神憑狀態)에 빠진 샤만(shaman.. 巫)의 곳에서 용이하다. 또 인간의 혼이나, 기운은 천공(天空)에서 표류(漂流)한다. 꿈에서 김일부가 요운전에 올라간 것이나, 강일순이 꿈에서 산중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 이야기도 타계에로의 여행사상이다. 도장도 타계로 간주되는 산중에 있다. 그런데 타계의 공간이나 시간의 질서는 꿈의 세계와 비슷하여, 인과율(因果律)이나, 모순율(矛盾律)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망한 세계이다. 이점은 근사성과 함께 이질성을 보인다. 그런데 타계는 신앙상으로 성(聖)스러운 곳이고, 현세는 속된 곳이며, 조화되어야 할 곳이다. 이런 이분 思想이 고대종교에 들어서면 타계와 현세는 단절된다. 이 단절에서 타계도 천국·지옥으로 이분(二分)된다. 선경도 이 이분에서 묘출(描出)된 사상이다. 또 타계가 어디에 있는냐는 사고(思考)로서 신이 있는 곳이 타계가 되고, 앞에서 언급한 묘, 종묘, 신전이 있는 곳이 타계도 된다.

대순사상의 선경은 타계의 분화(分化)된 천국(天國)과 흡사하다.

선경의 낱말은 중국 도교의 신선(神仙)사상에서 묘출된 것이다. 신선사상은 四世紀初에 抱朴子 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전경에 나타나는 도수, 신명, 조화등의 관념도 포박자(서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 元始天尊, 玉皇上帝, 玉京 등은 신선사상의 중심개념이다.

선경의 건조물에 관해서는 전술한바 있다. 그곳에 이루어지는 도술을 잠시 언급한다. 포박자에는 구름을 일으키는 법, 산이나 강을 만드는 법, 귀신이나 범등을 다스리는 방법, 구름을 타고 공중에 걸어다니는 법, 불에 뛰어들어도 타지 않는 법, 물속에 있어도 젖지 않는 법, 한서(寒暑)를 모르는 법, 재앙을 피하는 법등을 비롯하여, 양생(養生)의 실제법, 불로장생의 약재, 채

취법, 주부(呪符)를 만드는 선술(仙術)법등이 설명되고 있다. 선인(仙人)에도 계급이 있어 천선·지선·시해선(尸解仙)등 많은 신선들이 선경에서 산다. 묘는 모든 이런것들의 최후목적이 지상에서의 불로장수에 있으나, 전경은 흠보다 祿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齋)보다는 제(齊)에 의례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의례는 呪誦에 중심이 있다. 재나 주송은 視災招福에 그 목적이 있다. 선경에 여인이 남자보다 많이 든다는 것은 서양식 思考方式일까. 선경에서 여인들은 시봉(侍奉)적인 천사(天使)역을 맡을 뿐이다.

이상의 이외에도, 천지파멸, 상제천신의 강림수수계(降臨授授誠), 신명출현, 도장에 보이는 구학(龜鶴)사상, 재판의 신들, 천상에 사상은 훗날에 미루어 둔다. 끝으로 대순진리회 밖, 특히 국외에서의 종교문화 동향에 언급하고자 한다. 즉 종교의 세속화 사상이다.

세속화(世俗化, secularization)한 서양 17세기 중반 (1648년 Westphalia조약)부터 시작하여 세계이차대전 종결로 급속화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교신파(Protestantism)가 자기를 이해하려는 사상이다.

세속화의 주된 사상은 종교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자기관심을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돌리는 것, 말하자면 “인간의 성인(成人)”의 주장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서」에 있는 신화적인 설화를 재해석하였고, 예수도 인간임을 주장하고 신적인 그리스도를 구세자(救世者)로 옮겼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안에서 아니라, 기독교신앙에 훈련도 사회인, 즉 종교의 성인사회가 됐다는 국가, 사회의 社規인데에 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이르기까지는 각 방면에 거친 학자들의 진력이 있었다. 막스·베바(Max Weber), 하이데거(Heidegger), 폴·티리히(Paul Tillich), 최근에 방한(訪韓)한 콕스(Cox. 종교철학자)는 이 방면의 굴지의 인물들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유아의 종교에 있는 것이다. 이로써 성인이 된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다.

세속화사상은 목적을 아래의 네가지 항(項)에 두고 있다. :

① 재산의 종교집단화의 권위에서 시민(市民)의 통제, 적어도 신도일반의 통제하에 양도되는 과정의 형성, 여기서 진리회의 四大事業의 事業問題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상의 양도가 문화적, 정신적인 측면과 상합(相合)하는 것, 예를 들면, 교육·과학·예술등이 종교기관의 지배·감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③ 종교신앙의 현세적인 성격과 역할의 강조.

이상의 세속화는 아시아의 종교와 어떻게 부딪히고 동양종교가 자신 개방할것인가 주목된다. 필자는 이 세속화문제에서 동양종교의 원시적 신앙의 초월이 문제가 되며, 종교의 사업화, 도시화도 세속화과정에 들어서야 한다고 본다.

【 부 록 】

資料 1)

「…김일부(金一夫)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강사옥(姜士玉)과 함께 옥경(玉京)에 오르라는 천존(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 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 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행록 2장 2절)

「상제께서 광구 천하하심에 김일부의 꿈에 나타났으나,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 원신(元神)이 상제와 함께 광구천하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알고…」(예시 3절)

「天上玉京 天尊神將 天上玉京 太乙神將…」(개벽주)

「天門地戶 玉樞大判 上帝出座 萬神舉令…」(전경 209쪽)

「……吾奉三清眞王…」(전경 210쪽)

資料 2)

「…삼계(三界)를 개벽하는 공사를 처결하셨도다…」(공사 1장 2절)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三界)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재화가 일어나고…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서…」(공사 1장前半)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 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 되느니라…」(공사 1장 31절)

「…조선 명부를 전명숙, 청국 명부를 김일부, 일본 명부를 최수운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 곧 하루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공사 1장 7절)

「…원의 첫,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공사 3장 4절 중간)

「바둑의 시초 단주(丹朱)의 해운 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국운을 돌리려 함이라…」(공사 2장 3절, 9절)

資料 3)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厚薄)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水寒)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順逆)의 시비가 있으며 때도 한서(寒暑)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星宿)는 시비와 상극(相克)이 없나니라.」(교법 3장 6절)

資料 4)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공사 150쪽)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전경 48쪽)

資料 5) 후천 선경을 세우다.

「스물 네가지 약종만을 잘쓰면 萬國醫員이 되리라.」(예시 72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長生)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도술의 資料

「하늘에 나타난 햇무리는 천하의 종기(腫氣)이다. 이것의 치유는 쌓아 올린 풀더미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 쇠꼬리를 두어번 두룬다.」(공사 1장 8절)

「...날마다 백지 두서너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부(符=그림)를 그려 손이나 무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다. “이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다.”」(공사 1장 10절)

「동양 형세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존망(存亡)의 급박함에 대한 처리는 선제(船祭) 이였다. 선제는 다음과 같았다. “쇠머리 한 개를 사오개 하고, 백지 한권을 길이로 잘라 풀로 이어 붙이고, 절반을 말아 두 덩어리씩 각각 그릇에 담아 두었다.

...밤중에 앞의 창문에 두 구멍을 뚫고, 쇠머리를 삶아서 문앞에 두고

두 종도를 문 밖에서 종이 덩어리를 하나씩 풀어서 창구멍으로 들여 보내게 하고, 문안에서는 종이 끝을 다시 말으시더니, 종이 덩어리가 다 풀리니라. 별안간 천둥과 같은 기적소리가 터지니라. 이 소리에 외인들도 놀랐도다.

그리고 한 종도는 젖은 나무 한짐을 부엌에 지피게 하고, 연기를 기선(汽船) 연통의 연기와 같이 일으키게 하시고, “땃줄을 풀었으니, 이제 땃을 거두리라.” 고 말씀하시니 별안간 방에 있던 종도들이 모두 현기증을 일으켜…정신을 잃었도다…」(공사 1장 13, 14, 15절)